

전기료·최저임금·채무상환...소상공인 '사면초가'

소비 부진에 '냉방비 폭탄'까지...9월말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최저임금 인상 여부 관심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소상공인이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부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소상공인 주변에는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감소

했다. 지난해 11월(-2.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2월 증가 폭이 5.1%를 보였다가 3월(0.1%) 대폭 둔화했고 4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운영비,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이 반영하면 오히려 소비가 더 안된다보니 소상공인은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결국 폐업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돼 음식점, PC방 등 여름 냉방이 필수적인 소상공인 업종은 경영 애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산업용보다도 20% 정도는 부담이 큰 일반용 전기요금에 편입돼 있다"며 "최소한 소상공인도 산업용으로 편입해 주거나, 이런 방안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대출에 대

한 원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오는 9월 말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아직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 및 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국회 분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외국인 인력 일반 고용 허가제 외식 업종 범위 확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전 '에너지심포 매칭펀드' 운영

한국전력은 20일 에너지심포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와 에너지 효율향상의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에너지심포 매칭펀드'를 조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심포는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자

에게 절전을 요청, 전기사용자가 평소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한 전력을 시장에 판매, 사용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심포 매칭펀드는 고객이 에너지심포에 참여해 얻은 보상금을 기부하면, 기금(매칭펀드)에서 고객 기부금의 10배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칭펀드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SK텔레콤, LGU+ 5개사가 참여해 5천만원을 조성했으며,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 여성가정 아이 돌봄, 이혼동이 재활 치료비, 자립 준비 청년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사회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될 것"

광은프론티어 정기총회...보광건설 박상균 대표이사 2대 회장 취임

광주은행은 최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은프론티어 멤버스'는 각 사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30~40대로 구성된 우리지역 젊은 CEO들의 모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내용과 결산보고 등 주요안건 보고 및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칙개정, 초대회장인 대광건설(주) 조영훈 대표이사의 이임식,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주)보광건설 박상균 대표이사의 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내 대표적인 환경학자 홍중호 교수를 초청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시대 한국경제의 미래와 기업의 ESG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나눴다. 총회를 통해 광은프론티어 멤버스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주)보광건설 박상균 대표이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커다란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은프론티어 멤버스라는 모임을 통해 회원간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든든한 후원자인 광주은행과의 공고한 동반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과 광주은행의 굳건한 동반체계를 통해 차별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소임으로 지역발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2023 광주 사직단오축제

일시 2023. 6. 24. |토| 12시~
장소 사직단, 광주 관덕정 일대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은 민족의 세시명절인 단오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흥과 전통문화를 담은 흥겨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광주천년축제-2023광주사직단오축제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행사 일정 |

시 간	행사 내용	장 소	
개회식	~12:00	· 식전공연	관덕정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12:00 ~	· 단오축제 개회식(할쏘기 대회) · 창포머리감기	
	14:00 ~	· 목사출정행렬 → 회경루(14시) - 천변좌로 - 사직단(15시)	
공연 행사	15:00 ~	사직대제	사직단 (광주광역시남구사동)
	15:30 ~	취타대 공연	관덕정 (광주 남구 중앙로110번길 36 사직공원 내)
	16:00 ~	· 줄타기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명인)	
	17:00 ~	무대공연	
18:00 ~	폐막		
체합 행사	15:00~18:00	· 전통체합 (단오선, 애호, 장영루동)	사직단, 관덕정 일대

주 최 광주사직단오제추진위원회 **주 관**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직대제추진위원회
주 원 광주광역시남구 **협력기관** 광주문화재단 / 광주 관덕정 / 광주대학교 / 광주매일신문사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광주향교
협동조합 꼬끼리 / 협동조합 꿈꾸는거북이 / SU인터넷엔터테인먼트 / 사직동 주민센터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제작지원' 30일까지 사업 참가 접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2023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제작지원 사업' 참가 뮤지션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뮤지션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형식이 아닌 앨범 제작지원으로 총 10개 팀(가창5팀, 연주5팀)을 선정, 각 부문 뮤지션별 선호도와 장르에 맞는 음원·음반 제작지원, 다양한 음원 제작 후반 작업, 부문별 유튜브 플랫폼 지원 음반 제작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지원한

다. 신청요건은 광주 거주자 및 광주 소재 고등, 대학교 재학 및 졸업(8년 이내)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팀(개인)별로 3곡 이상의 미발표 창작곡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단체로 신청할 경우 팀원 중 1명 이상이 모집요건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